

돈에도 道가 있다



‘알몸이 부처되다’ 낸 서광스님

서광스님(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이 낸 책의 제목은 무척 선정적(?)이다. 바로 <알몸이 부처되다>이다. 여기서 ‘알몸’이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함을 뜻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욕심 때문에 벌거숭이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목말라하는 우리 중생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은 스님들의 주된 화두인 수행이야기가 아니다. 주로 경제 지표인 ‘돈’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을 몇장 펼쳐면 ‘아니 무슨 스님이 마음 수행도 아닌 돈얘기야?’라며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필요한 것이 돈이고, 참다운 소유는 무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들려준다는 게 서광스님의 생각이다. 이 책 출간을 위해 잠시 귀국한 서광스님을 7월 9일 대한불교 진흥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참다운 소유는 무소유보다 더 어려워”

▲스님이 돈이나 경제 얘기를 하면 자칫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 요즘 카드빚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 직장을 잃는 사람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요. 이것은 결국 돈을 버는 데만 급급했지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빚을 지게 되면 천천히 상환해도 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기 간내에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킵니다. 이것은 모두 경제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소유하지 않는다, 탐심을 버린다는 생각도 좋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수행이라는 생각이 미국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살려 펜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평소 생활하면서 터득한 효과적인 돈쓰기 비법이 있다면 들려주시지요.

- 저는 쓸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불을 밝히는 전기와 시간 등 천연 자원은 철저히 아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야 하는 것이니 만큼 아껴야 하지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는 긴축재정을 하지만 타인들에게는 넉넉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93년 미국에 처음와서 보니 법당에서 여는 법회가 한달에 두 세번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회에 참석하는 법자들이 대다수가 두 세시간씩 차를 몰고 오는이들입니다. 그래서 신도 각 개인들에게 중요한 시간인데 철에 왔을 때 만큼은 종교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그 만큼의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시 법회 수를 한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신도 각 개인들에게 신행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 줍니다. 1년동안 꾸준히 이런 방법으로 신도들을 대했더니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종교적 기회비용을 신도들에게 제공한 셈이지요.

▲술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평범한 말에서 잘 와닿지 않는데, 스님의 돈쓰기 방법을 실효력 있게 설명할 여하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 개인택시를 하면서 크게 성공한 어떤 기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택시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 욕심으로 장거리 손님만을 가려

태우며 일일이 돈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결산 후 인연 닿는 손님을 태운 사람과 손익을 따져보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은 조금해져 사고가 나고 교통 위반에 더 많이 걸려 손해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손님을 가리지 않고 인연 닿는대로 태우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운동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돈이 술술 벌려 돈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부자들의 눈앞 이익보다 공의·행복위해 투자”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미국에 있으면서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성공한 이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는 여러사람의 공의와 행복을 위해 돈을 쓰고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성공한 기업가들의 사업 아이템도 역시 이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10년동안에 걸쳐서 완성한 영한불교사전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배우 수 있게 매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불교 서적도 계속 펴낼 계획입니다. 북로드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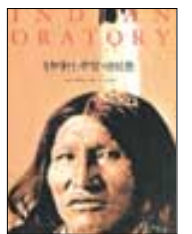
글=김주원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서광스님 1992년 청도 운문사에서 명성스님을 은사로 출가. 93년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해외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불이회’가 제정한 제18회 불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요저서로는 <마음의 치료> <영불교사전>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낸 유식 30승>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불교상담심리학 입문> <그냥 버려달라 불 뵈다가>가 있다.



전문가 서명



인디언 추장 연설문

W.C.벤더워스 역음 | 김문호 옮김 | 그물코 펴냄 | 1만5천원

한 집단의 연설문은 그 집단에 관련된 증대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집단이 어떤 가치관에 입각해 그 문제들에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 책은 인디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인디언 추장 36명의 연설문 49편을 수록하고 있다. 기존에 소개된 연설문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역사적 배경도 생략되어 인디언에 대한 신비화와 왜곡을 낳아왔던 데 반해, 정확한 자료들을 토대로 ‘현실의 인디언’을 현저하게 재현해내고 있다.

인디언들의 훌륭한 연설은 인디언들이 무지한 미개인이었다고 말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일축하게 만든다. 연설들은 대부분 매우 유창하고 논리적이며, 대단한 설득력이 있다. 위트와 풍자도 풍부하다. 대부분의 연설문들이 백인들과의 투쟁을 다루고 있다. 협상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던 시기의 정확한 기록을 엿볼 수 있어 인상적이다.

세네카족의 ‘붉은 빛도리’ (1756~1830)는 뛰어난 연설로 유명하다. 1792년 조지 워싱턴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미국 상원에서 연

무지한 미개인 인디언?

위트 넘치고 논리적인 연설문의 감동

설을 하기도 한 붉은 빛도리는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백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형제! 한때 우리의 자리는 컷고, 당신들의 자리는 작았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큰 민족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겨우 담요를 펼 자리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네 종교를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형제! 우리는 당신네 종교를 파괴하고 싶지 않고, 그 종교를 당신들에게서 빼앗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의 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백인들이 땅을 잠식해들여오는 것을 반대해 끝까지 저항했으며 전투에서 전사한 소니족의 테쿰세(1768~1813)는 동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이제 곧 여러분의 조상들의 무덤위로 백인들의 붉은 도마가 날 것이며 그들이 안식을 취하던 자리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위대한 정령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우리의 안식처와 대지, 죽은 자들의 무덤과 소중하고 신성한 모든 것들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단 한사람의 전사가 남을 때까지 우리의 부족, 우리 집, 우리의 자유, 우리 조상들의 무덤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항주의자 테쿰세의 호소는 백인들에게 후회적이었던 흑토우족의 푸슈마타하(1764~1824)의 항쟁주의에 밀린다.

“우리는 전쟁에 서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할 것이고 전사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여성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탄에 잠길 것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정은 파탄을 맞을 것이다. 나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유혜선(여주대학 강사 · 미국사전공)

2000년 1월 1일 발행

주머니 속의 작은 친구

범우문고

2000년 1월 1일 발행

② 법정 (무소유)

- 1 수필 피천득
- 3 바다의 침묵(외) 베르톨트 브레히트 | 조규환 | 이영범
- 4 실버 생각하며 미우라 아이코 | 친용기
- 5 오, 고독이여 F.니체 | 최희순
- 6 어린 왕자 A.생텍쥐페리 | 이영범
- 7 불스토이 인생론 L.톨스토이 | 박영규
- 8 이 조용한 시간에 김우중
- 9 시지프의 신화 A.카뮈 | 이영범
- 10 목마른 계절 전혜린
- 11 젊은이여 인생을... A.모우아 | 방근
- 12 체근달 홍자성 | 최현
- 13 무진기행 김소월
- 14 공자의 생애 최현 역음
- 15 고독한 단상을 위하여 L.린저 | 권복록
- 16 김소월 시집 김소월
- 17 장자 장자 허세욱
- 18 예언자 K.지브란 | 유재하
- 19 율동주 시집 율동주
- 20 명정 40년 변영로
- 21 산사에 심은 뜻은 이창남
- 22 날개 이상
- 23 애말밭 풀 무렵 이효석
- 24 애정은 기도처럼 이영도
- 25 이브의 천형 김남조
- 26 탈무드 M.토케이어 | 정진태
- 27 노자도덕경 노자 | 황영국
- 28 갈매기의 꿈 R.버크 | 김진욱

- 56 젊은 사인에게 보내는 편지 R.롤레 | 홍경호
- 57 피천득 시집 피천득
- 58 아버지의 뒷모습(외) 주자형(외) | 허세욱(외)
- 59 현대의 신 N.쿠차카렌 | 진환승
- 60 별·마지막 수업 A.도데 | 정봉규
- 61 인생의 선율 J.러브크 | 한영남
- 62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F.사강 | 이영범
- 63 이동주 시집 이동주
- 64 고독한 산보자의 꿈 J.루소 | 임기훈
- 65 파이프를 물라프 | 최현
- 66 백작미의 수기 J.솔 | 홍경호
- 67 소년 시절 H.헤세 | 홍경호
- 68 어떤 사람에게도 김동길
- 69 가난한 밤의 산책 C.헤더 | 송영택
- 70 근원수필 김동준
- 71 이방인 A.카뮈 | 이영범
- 72 롱펠로 시집 H.롱펠로 | 윤상하
- 73 명사집1 원운문
- 74 원운집이 어린 P.란트게 | 홍경호
- 75 시인의 반항 H.D.소로 | 황문수
- 76 민중조선사 전석남
- 77 동문서답 조지훈
- 78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 최현
- 79 표본의 청개구리 명상성
- 80 문주반생기 황우중
- 81 신조선혁명론 박영 | 서석연
- 82 조선과 예술 아나기 무네오 | 박재삼
- 83 중국혁명론 모택동(외) | 박광중 역음
- 84 탈출기 최재환

- 85 바보네 가계 박연규
- 86 도애실기 김구 | 임환섭 역음
- 87 술몰이여 안녕 F.사강 | 이영범·방근
- 88 공상선 선원 K.마르코프스키 | 서석연
- 89 조선문학사 이영선
- 90 권대 이상
- 91 내 마음속의 그들 한승헌
- 92 노동자정당 F.라살레 | 서석연
- 93 잠시 일가 유주현
- 94 백설부 김진성
- 95 에코파즘 A.토몰러 | 김진욱
- 96 가난한 농민에게 버린다 N.케닌 | 이영범
- 97 그리기 단편선 M.고리키 | 김영국
- 98 러시아의 조선침략사 송정환
- 99 기재가이 신광현 | 박현순
- 100 홍경래전 이영선
- 101 인간안사 새옹지마 리영희
- 102 청춘을 불사르고 김원업
- 103 모병경작(외) 박영준
- 104 방망이 깎던 노인 윤우영
- 105 찰스 럼 수필선 C.럼 | 양병석
- 106 구도자 고은
- 107 표해록 장한철 | 정병욱
- 108 왕광국 흥년파
- 109 무서록 이대준
- 110 내성문(외) 아르타와 루노스케 | 친용기
- 111 해변의 시 김동석
- 112 발차크와 스타팅의 예술논정 김진욱
- 113 파란집 이인보 | 이상보

- 114 역사소품 권말영 | 김승일
- 115 제스·아래의 불인 S.쇼브레이크 | 오영욱
- 116 북덕방 이태중
- 117 실천론(외) 모택동 | 김승일
- 118 순오기 홍만종 | 전규대
- 119 직업으로서의 학문 정치 M.베버 | 김진욱(외)
- 120 오재지이 포송령 | 진기환
- 121 한살이 단편선 한살이
- 122 소편하이어 수상록 쇼펜하우어 | 최희순
- 123 유태인의 성공법 M.토케이어 | 친용기
- 124 레디메이드 인생 케인식
- 125 인물 삼국지 모리야 히로시 | 김승일
- 126 한글 명심보장 장기근 옮김
- 127 조선문화사적 모리스 루소 | 김수경
- 128 역동패설 이재현 | 이상보
- 129 문장강화 이태중
- 130 중용 대학 차주환
- 131 조선미술사연구 윤희순
- 132 옥중기 오스카 와일드 | 임원진
- 133 유태인식 돈벌이 후지다 덴 | 친용기
- 134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은
- 135 세계의 기적 박광순
- 136 이회계의 활인심방 정숙
- 137 카네기 처세술 대일 카네기 | 진민석
- 138 요로원아하기 김승일
- 139 푸슈진 산문 소설집 푸슈진 | 김영국
- 140 삼국지의 지혜 형리학 역음
- 141 굴센길 이규보 | 장덕순
- 142 보리 한옥주

- 143 에머슨 수상록 에머슨 | 윤상하
- 144 아사도라 영안의 무용예(외) | 문진희(외)
- 145 북학의 막대기 김승일
- 146 두뇌혁명 T.R.클락슬리 | 최현
- 147 베이컨 수상록 베이컨 | 최희순
- 148 동백꽃 김유정
- 149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A.벤치 | 이문순
- 150 평민문학사 하경진
- 151 정선시라장 김병하·김연길 공역
- 152 독서요법 황리배 역음
- 153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R.롤레 | 이영범
- 154 조선사 연구(專) 신재호
- 155 중국의 신화 장기근
- 156 무병장생 건강법 배기성 역음
- 157 조선역사학 신재호
- 158 정삼록비결 편찬부 역음
- 159 유태인 상술 후지다 덴 | 친용기
- 160 동학농민 조지오웰(외) | 최현
- 161 신록 예찬 이영하
- 162 천도리랑 박영준·김연길
- 163 책이 좋아 책하고 사내 율동주
- 164 속담예제이 박연순
- 165 중국의 신화(專) 장기근 역음
- 166 귀여운 여인(외) A.체호프 | 박영규
- 168 아리스토텔레스 희곡선 아리스토텔레스 | 최현
- 169 세네카 희곡선 세네카 | 최현
- 170 테레티우스 희곡선 테레티우스 | 최현

- 171 모차르트 카르네이 | 이영배
- 172 카르멘 메리메 | 김진욱
- 173 방법서설 데카르트 | 김진욱
- 174 페타의 산문 페타 | 이상호
- 175 이해 사회학의 카테고리 막스 베버 | 김진욱
- 176 라셀의 수상록 라셀 | 이상호
- 177 속악유회 최영년 | 황문수
- 178 권리를 위한 투쟁 R.V.에빙 | 송영택
- 179 돌과 문답 이규보 | 장덕순
- 180 성황당(외) 정병석
- 181 양프강(외) 필리프 | 김병길
- 182 불의 수상(외) 조지 기싱 | 이영배
- 183 아미엘 일기 아미엘 | 민희석
- 184 예언자의 집에서 토마스 먼 | 박현덕
- 185 모차랄트 카르네이 | 이영배
- 186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 오상순
- 187 무하선생 방랑기 김상용
- 188 어느 시인의 고백 릴케 | 송영택
- 189 한국의 옛 유래담
- 190 자연과 인생 도쿠모미 로카 | 친용기
- 191 태양의 계절 이시하라 신타로 | 고영국
- 192 애서할 이야기 구스타브 플로베르 | 이영진
- 193 명심보장의 명구 191년 이영배
- 194 아류정전 후선 | 허세욱
- 195 촛불 신성정
- 196 인간제도 추시
- 197 고향산수 마해송
- 198 아랑의 정조 박종하
- 199 지사총 조선적

▶ 각권 값 2,800원 ▶ 계속 출간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기를! www.bumwoosa.co.kr T. (02)717-2121